

5/30(월) 에스더 묵상 15

에스더 9:17-10:3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고 원수를 멸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날을 경축하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모르드개는 이 날을 부림절로 제정하였고 유대인들은 해마다 이 날을 지키게 됩니다.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

유대인들은 각각 페르시아 지방에 있는 사람은 심삼일에 모여서 십사일을 그리고 수산에서는 십삼일과 십사일에 모여 십오일을 잔치를 베풀며 즐거워했습니다(17-18절, **“아달월 십삼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십사일에 쉬며 그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은 십삼일과 십사일에 모였고 십오일에 쉬며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하만에 의해 모두가 전멸당하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역전의 은혜를 행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31절,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대인 모르드개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대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셨고 에스더와 모르드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고전 10: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만약 피할 길이 없다면 바울의 말씀대로 그 시험을 감당할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 너머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림절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가지 절기를 준수했습니다(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그리고 이 중에서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히브리력으로 아빕월 또는 니산월 14일로서 태양력으로 3-4월에 지키는 것입니다. 칠칠절(오순절)은 히브리력으로 시완월로서 태양력으로는 5-6월에 지키게 됩니다. 초막절은 히브리력으로 디스리월 또는 에다님월로서 태양력으로 9-10월에 지킵니다. 이 절기들은 구약 시대 때부터 지키던 절기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지배 기간에 또다른 절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모르드개에 의해서 제정된 부림절입니다. 부림은 ‘제비뽑기’라는 뜻으로 히브리어 ‘푸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에 3:7, **“아하수에로 왕 제십이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부림절은 유대인들이 하만의 간계로 인한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입니다. 부림절은 히브리력으로 아달월 십사일과 십오일에 지키게 되었습니다(20-21절, **“모르드개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십사일과 십오일을 지키라.”**). 아달월은 히브리력으로 12월로서 태양력으로는 2-3월을 뜻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첫번째 절기인 유월절 한 달 전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림절이 시행된 첫번째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22-23절, **“이 달 이**

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대인들은 부림절에 각처에서 잔치를 행하며 서로간의 나눔과 구제의 날로 지켰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날 유대인들은 부림절이 되면 오전에는 각처의 회당에 모여서 에스더서를 읽고 서로 작은 선물을 나눈다고 합니다. 성경의 전통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높임을 받게 된 모르드개는 페르시아에서 자신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그의 사는 날 동안 유다 백성들에게 선의를 베풀며 크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 대로 부림절은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있어 여전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림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아니 구약 성경의 3대 절기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갈 4:9-11,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달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절기가 단지 축제로만 지킨 것이 아니라 각각에 해당하는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그들이 맺은 언약 관계를 기억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그리스도의 귀중한 피의 값으로 교회의 자유를 사셨는데 그 교회가 각종 절기들과 의식과 전통에 사로잡힌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짐승의 제사를 드리며 절기를 지키는 것은 바울의 말대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일’이고 비성경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절기의 완성이자 주인이신 예수님을 매주일마다 그리고 날마다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는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기뻐하며 축제를 지냈던 것처럼 기쁨과 감사의 삶이 우리의 예배와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살전 5:16-18상,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하루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남은 군인과 민간인들 그리고 주변 나라로 피신한 실향민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을 돕고 있는 주변 국가와 구호단체,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소서.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밀포드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케냐 최인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